



이명진 진안군의회 의원, 장학금 150만원 기탁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이 4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이명진 의원은 3년째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며 진안군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이명진 의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꿈을 펼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전춘성 이사장은 “이명진 의원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 진안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장학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덕과면, 노인일자리 발대식 · 안전교육

남원시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성월계)에서는 지난 3일,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노인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를 위한 것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며, 이날 발대식에서는 사업명 살기 좋은 고을 가꾸기 참여자들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활동요령 등을 교육하고,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정화와 주민 계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다졌다. 성월계 덕과면장은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칠보면,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정읍시 칠보면은 지난 3일 노인일자리사업 시행에 앞서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는 29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미을환경정비와 도시락 배달 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즐거운 걸터 기부기 및 어르신 행복 나누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총 29명의 어르신이 선별돼 2월부터 미을환경정비와 도시락 배달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발대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올해 사업 진행의 전반적인 내용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 기축방역 소독시설 방역용품 지원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는 4일 고창군 기축방역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방역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이미정 지부장은 고창군 흥덕면에 소재한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활동에 힘쓰고 있는 근무자들의 이로사항을 청취하며 방역복(240벌)과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이미정 지부장은 “최근 AI 확산으로 인한 가축방역근무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협도 각 지역에 구성된 공동방제단을 중심으로 방역활동과 축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흥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마을 속 이야기가 무르익다’

2025년 진안군마을축제, 은천마을서 힘찬 발걸음

올해 18회를 맞이하는 진안군마을축제를 위해 축제조직위원회는 4일 진인읍 은천마을에서 2025년도 마을축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은천마을은 매년 거북제를 지니며 마을의 평안과 건강을 비는 전통을 행하고 있다. 이날은 거북제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가 참여하여 입춘대길 원목

현관 만들기 수제 레몬청 만들기 체험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진안군 마을축제는 이후 12일 마령면 원평지마을과 부기면 장승마을에서 정월대보름을 테마로, 28일에는 부기면 우정마을에서 당시나무 산신제 등 마을의 원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모여 한뜻으로 전통문화를 계



승하고 다양한 체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인석 진안군마을축제 조직위원장은 “마을축제로 인해 마을마다의 이야기가 저마다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마을축제를 통한 도농교류 뿐만 아니라 축제 참여 마을 간 교류 및 소통에도 중점을 두어 행사 를 진행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마을축제는 연중 신청 마을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30여 개소가 참여할 예정이며, 마을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마을 지원을 활용해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주민의 역량과 함께 성장하는 밀거름이 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2036 올림픽 유치 기원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이 2036 하계올림픽 전북지자체 유치를 기원하는 GBCN 철린지에 동참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GBCN 철린지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슬로건인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의 출발말로, 전북도민에게 올림픽 유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림픽 유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4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시작으로 도내 주요 기관장, 기업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박병래 의장은 동참으로 진안군의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범도민 텔레야에 동참하게 되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철린지를 통해 “군민들과 함께 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고, 목표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밀전과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박병래 의장은 다음 GBCN 철린지 응원 주자로 조상완 NH농협 부안군지부장과 송광복 부안수협조합장을 지목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보건소,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와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지영)는 4일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희망하는 읍면동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들에게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만들기 위한 노인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남원시 60세 이상 자살 시망자 수는 전년도 대비 약 1.5배로 증가했다.

특히 80세 이상의 노인 자살률이 증가 추세로 나타나며 남원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우울증 예방 및 자살 위험 신호 파악과 적절한 대처 방법, 지역사회 내 자원 활용법 등 실제 사례 중심의 실습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추진한다.

남원시보건소 박은아 치매안심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노



인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차별적인 자살 예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용훈 정읍 교육장,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정읍교육지원청 최용훈 교육장이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철린지에 동참했다.

최용훈 교육장은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철린지에 남원교육지원청 박영수 교육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였으며 적극적인 응원과 함께 정읍교육공동체의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최 교육장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 꿈입니다. 정읍 교육공동체는 스포츠 정신을 향유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림픽 유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2036 하계올림피아 전북에서 개최된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더 큰 꿈을 향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철린지를 통해 정읍 교육은 스포츠 교육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최 교육장은 다음 철린지 참여자로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최종필 회장을 지목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안군 진안읍 얼굴 없는 천사, 15년간 이어진 쌀 기부

15년간 쌀을 기부해온 진안읍 얼굴 없는 천사의 따뜻한 손길이 올해도 이어졌다.

의명의 기부자가 진인을 행정복지센터에 쌀 10kg 60포(165만원 상당)를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고 전달한 것. 기부자는 15년간 쌀 포대와 메모만 남기며 선행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진인읍 행정복지센터에 쌀을 보내왔다.

이에 진인읍은 기부받은 쌀 60포를 지역 내 저소득 취약 계층 60세대에 신속히 전달했다. 쌀을 받은 한 주민은 “매년 잊지 않고 도움을 주시는 분 덕분에 마음까지 따뜻해진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상식 진안읍장은 “올해도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신 의명의 기부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돋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진안=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운봉할인마트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은주)가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착한가게 기부에 동참한 운봉할인마트(대표 박홍규)에 착한가게 11호 현판을 전달하고 축하했다.

착한가게는 자영업자 및 소상인이 매월 3만원 이상 일정 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운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은주, 신동열)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박홍규 운봉할인마트 대표는 “마트를 이용해 주시는 운봉읍민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인데 착한가게 동참으로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더 행복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에 이은주 읍장은 “농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여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민원과 찾아 친절교육 · 격려

장수군은 지난 3일 최훈식 군수가 민원과를 찾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친절교육에서는 방문 민원 및 전화응대 요령 실제 민원 사례를 공유하며 단순한 응대 기술을 넘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법들을 종합으로 다뤄 직원들이 더욱 향상된 민원 응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수군은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민족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 직원 친절교육 실시, 디지털 민원 시스템 강화 등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여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장수=고판식 기자



전북은행, 정읍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89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4일 정읍시 푸른숲속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89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개소한 푸른숲속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취약한 아동들에게 방과 후 학습뿐만 아니라 창의미술, 탁구, 풋볼, 피아노, 오페라 등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센터 환경이 노후화되고 열악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은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해 아동 수에 맞춰 1인 용 책상과 의자를 전면 교체했다. 또한 고장 등으로 그동안 가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냉·난방기 지원 및 디어온 테이블과 신발장 블리인드 등을 설치해 편안한 환경 조성으로 아동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오픈식에는 정읍시 강한석 복지환경국장, 푸른숲속지역아동센터 이경진 센터장, 전북은행 김태석 정읍지점장, 국종만 정읍시청영업점장 등이 참석했다.

전상의 부행장은 “전북은행이 10년 넘게 지속해 온 지역 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을 올해도 자체와 협력해 꾸준히 이어가며 아동 돌봄 및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훤원하는 상생경영으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0면호 기자